

## 국내의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**SIN: 신조선가치수 154p, 중고선가치수 183p**

Clarksons에 따르면, 신조선가치수는 154p(+0p, WoW), 중고선가치수는 183p(+0p, WoW)를 기록함. 2020년에는 1,032척이 발주된 반면 2021년 12월 셋째주 기준 1,621척이 발주됨. (Clarksons)

### 한은, 대우조선해양 새 인수자 물색?

유럽연합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최종 불허할 경우 산업은행은 바로 새 인수자 찾기에 착수한다는 전망이다. 인수 후보로는 포스코, 한화, 효성 등 철강업체와 방산업체들이 거론되고 있음. (선박뉴스)

### Tanker newbuilding market sees second barren month in 2021, Affinity says

2021년 8월, 11월에는 탱커가 1척도 발주되지 않으며 신조선 시장이 전반적으로 동면 준비에 들어감. 컨테이너선 발주는 10-11월 저조했고, 벌크선도 운임시장 변동성으로 발주가 감소함. (Tradewinds)

### Bleak for VLCCs in 2022, while 'avalanche' of newbuilds threatens suezmaxes

VLCC는 2021년 30년래 가장 저조한 해를 보냈지만 2022년에도 고전할 것으로 보도됨. 2020~2022년 증 선대 규모는 +9.4%가 증가하며 공급 압박이 커질 것. 예상 해체 척 수는 13척임. 2022년 예상 선대증가율은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인 3.1%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. (Tradewinds)

### International Seaways sees product tanker recovery continuing well into 2022

정유 수요 증가에 따라 석유제품운반선(PC)운임의 상승세가 향후 몇 분기 동안 이어질 것임. MR 탱커 해체량도 늘어나며 2022년에는 원유운반선 시장보다 회복이 빠를 것으로 보도됨. (Tradewinds)

### 바이든표 1.7조달러 사회인프라 법안 연내통과 결국 무산 위기

민주당 중도파 맨친 의원이 강력 반대의사를 천명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1조7,500억달러규모 인프라투자법안이 무산 위기에 처함. 맨친 의원 반대 시 상원통과가 불가해짐. (아시아경제)